

해방기 최명익 소설의 지속과 전환, 소통과 거리두기*

- <마천령>을 중심으로

김 호 주**

차 례

- | | |
|-------------------------------|--------------------------------|
| 1. 서론 | 2) 인텔리 의식 승화와 동지애의 실 |
| 2. 고상한 리얼리즘과 최명익의 창작
방법론 | 현 |
| 3. <마천령>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지속과 전환 | 4. 해방기 최명익 소설의 성취와 소설
사적 가치 |
| 1) 과거 회상과 대안적 공간의 모색 |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해방기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창작 방법론의 지속과 전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고상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교적 양상과 소설사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9001).

** 안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한다. 해방기 최명익 소설에 대한 접근은 해방 이전 창작한 모더니즘 작품의 연속선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모더니즘 경향을 지속하고 새로운 리얼리즘 요소를 반영한 작품 <마천령>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천령>은 최명익의 자전적 요소가 반영된 작품이다. 여기에는 ‘인텔리 의식’ 때문에 비평가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은 최명익의 내적 고뇌가 담겨 있다. 또한 해방기 북한 정국이 제시한 ‘고상한 리얼리즘’의 수용과도 관련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방 이전 모더니즘적 경향이 강한 <비오는 길>을 준거의 틀로 삼았다. <마천령>은 <비오는 길>로 대변되는 해방 전 모더니즘 소설의 창작방식과 태도를 계승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맥령>으로 대표되는 해방 후 고상한 리얼리즘의 창작방식과 태도를 참작하고 수용한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마천령>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존재하는지를 해명하였다.

주제어 : 최명익, 마천령, 고상한 리얼리즘, 인텔리 의식, 모더니즘, 반제국주의

1. 서론

이 글은 해방기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창작 방법론의 지속과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고상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교직 양상과 그 지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최명익의 리얼리즘적 변혁이 그의 모더니즘적 자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방 후 최명익이 북한에서 발표한 <마천령>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해방 이전 모더니즘을 추구하던 최명익이 해방 후 북한 체제

아래에서 리얼리즘을 표방하고 실천한 점은 매우 중요한 문학적 사실이다. 최명익이 북한 체제 하에서 ‘고상한 리얼리즘’을 수용하여 창작에 반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소설가로서의 최명익의 전환은 단순한 전향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문학 내외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대 자본주의와 이념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 둘 다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던 최명익이 해방 후 평양예술문화협회의 회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천령>을 발표한 후 당대 비평가들에게 인텔리 모더니즘적 경향으로 인해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는 점이 그런 복잡한 사정과 관련될 것이다.

해방 이후 최명익 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는 김재용, 김해연, 신형기, 장수익, 김효주 등이 있다. 김재용(2000)은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들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피고 <제1호>를 소개하였다. 김해연(2002)은 해방 이후 소설인 <맥령>의 서술 기법을 분석하였고, 그 단절성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신형기(2004)는 <맥령>과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모더니티가 연출한 분열과 종합의 의지가 해방 이후 건국과 관련된 민족주의적 열정의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보았다. 장수익(2012)은 최명익의 중기 소설에 대해 다루면서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 문학에 대해 두루 고찰하였다. 김효주(2018)는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 최명익 소설의 연속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지속하였다. 특히 해방 후 당대 문단 상황과 이데올로기 변화와 관련된 작가의 고뇌에 주목하였다.¹⁾ 지금까지 해방 이후 최명익 소설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²⁾ 대부분의 논의들이 재북 문인 혹은 북한 문학과와의 관련성의 차원

1) 김재용, 『해방직후 최명익 소설과 『제1호』의 문제성:비서구 주변부의 근대와 탈식민화의 어려움』, 『민족문학사연구』 제17집, 민족문학사학회, 2000; 김해연,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신형기, 『최명익과 쇄신의 꿈』, 『현대문학의 연구』 제2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장수익, 『민중의 자발성과 지도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회, 2012; 김효주, 『최명익의 <맥령>에 나타난 제국주의 수탈과 토지개혁』, 『우리말글』 제78집, 우리말글학회, 2018.

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마천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했다. 최명익은 1947년 <맥령>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수탈과 토지개혁 문제를 다루면서 김일성을 원경으로 포착한 바 있다.³⁾ 같은 해 그는 <마천령>(1947)을 발표한다. <마천령>은 건국사상총동원 운동의 일환으로 함경도 성진군에 파견된 최명익의 자전적 요소가 반영된 작품이다. <마천령>은 <맥령> 발표 이후 일정하게 달라진 작가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해방기 북한 정국이 제시한 ‘고상한 리얼리즘’의 수용과도 관련된다. 본고는 이 점을 참작하면서 <마천령>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다. 특히 북한 정국에서 최명익이 획득했던 정치적 입장과 개인적 고뇌 등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작품 해석에 반영하려 한다. 먼저 해방 이전 모더니즘적 경향이 강한 작품으로 최명익의 공식 문단 등단작인 1936년에 발표한 <비오는 길>을 준거의 틀로 삼을 것이다. <마천령>은 <비오는 길>로 대변되는 해방 전 모더니즘 소설의 창작방식과 태도를 계승하고 지속한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해방 후 <맥령>으로 대표되는 고상한 리얼리즘의 창작방식과 태도를 참작하고 수용한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2) 본 논의와 관련하여 해방 이전의 최명익 소설 작품 속에서 리얼리즘적 소설로의 변모 조짐을 찾으려 한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채호석은 해방 이전의 작품인 <비오는 길>과 <장삼이사>에서 리얼리즘으로의 도정을 찾아내려 했다. 최명익은 두 작품을 통하여 지식인의 관점에서 민중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리얼리즘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계관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보았다.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최명익론』, 김윤식, 정호용 엮음, 『한국 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195-212쪽. 정현숙 역시 <장삼이사>에서 리얼리즘적 가능성을 모색하다가 <기계>에 이르러 본격적인 모더니즘을 부정한다고 보았다. 정현숙, 『대립과 갈등의 미학-최명익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1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619-636쪽. 이들의 연구를 통하여 최명익 소설 속에서 내면화된 변혁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해방 이전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명익 소설의 창작방법의 전환과 변혁을 전반적으로 해명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창작방법의 전환과 변혁에 대한 고민은 해방기 소설에 집중하여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김효주, 앞의 논문, 2018, 204-208쪽 참조.

이 두 가지 측면이 <마천령>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존재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마천령>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했던 안함광과 한효를 비롯한 북한 비평가들의 담론에 대한 반론이 되기도 할 것이다.

2. 고상한 리얼리즘과 최명익의 창작 방법론

해방기 북한의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1946.3.25.)은 『문화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의 기관지를 통하여 ‘고상한 리얼리즘’을 정립하고 작가들의 창작 과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고상한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화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의 방법과 사회주의 이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리즘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⁴⁾ 고상한 리얼리즘은 긍정적 주인공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조선 사람의 치열한 노력과 투쟁, 승리와 영예를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그려낸 창작방법론을 뜻하는 것이다.⁵⁾ 1947년 김일성의 신년사와 더불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1차 확대상임위원회’의 결정에서 ‘고상한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천명한 뒤, 한국 전쟁 무렵까지 북한 문학의 창작방법론으로 공식화되었다.

북한의 공산당이 문예 운동에 대해 정책적인 간섭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3월 당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강령을 채택하고 난 후 부터였다. 이 결정에는 문화 예술이 조국과 인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프

4) 권영민,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63쪽.

5) 오테호, 『해방기(1945~1950) 북한 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 -『문화 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6집, 우리어문학회, 2013, 319-358쪽.

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민족 문화는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는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곧바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의해 하나의 복무 조항처럼 모든 문화 예술인들에게 요구되었으며, 1947년 9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사업 검열 총화”라는 예술 창작에 관한 규제와 지도 사업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이 사업은 문학예술의 사상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제반 원칙을 엄수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과 민족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주인공을 통해 새로운 전형성을 창조해야 한다는 창작의 규범을 내세움으로써, 문학예술에 대해 사상적 요구를 강화했다.⁶⁾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최명익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최명익 역시 일정하게 그 강령에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해방 이전 작품과 관련하여 구 카프계 비평가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박남수는 구 카프계 평론가들에 의해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던 최명익의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최명익은 과거 심리주의적인 작품을 써 온 자로 『心紋』, 『張三李四』 등으로 그 역량이 알려진 바이라 구카푸파는 최명익도 가장 싫어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문단초창기부터 그 압박은 말할 수 없이 심하였다. 더욱이 평문협이 회장이었고 그의 작품 『심문』에는 옛날 좌익 운동자의 말로를 그의 인물을 아편중독자로 그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여러 번 반동으로 몰려고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최명익은 해방 후에도 그런 사실은 알고도 모른척하고 『麥嶺』 등의 작품을 내놓았다. 그 역량을 어쩔 수 없이 그를 처단까지는 하지 못하면서도 갖은 수단으로 그를 깎아 내리었다. (중략) 그 후로도 그의 작품이라면 쫓아다니며 혹평을 쓰기에 열심인 안함광·한효·엄호석·홍순철 등이 있었으나 그는 태연자약히 작품을 내놓았다.⁷⁾

6) 권영민, 앞의 책, 1989, 60쪽.

7) 박남수, 『적치 6년의 북한문단』, 보고서, 1999, 123-124쪽. 박남수의 글은 반공 이념을 토대로 하여 적의 부정과 타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교차와 검증이 필요한 텍스트이다. 다만 최명익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로당 계열이나 조선문학가동맹의 지도적 이론가였던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은 북한 문단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숙청당한다. 반면 안함광, 한효, 윤규섭, 신구현, 김하명, 이찬, 이기영, 한설야 등은 문단 생활을 지속한다. 특히 이찬, 이기영, 한설야 등은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의 문화예술 정책을 시찰하고 기행문을 소개할 만큼 북한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⁸⁾ 이렇게 살아남은 비평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상한 리얼리즘이 구안되고 관철된 것이다. 한편 이들은 자신들의 노선에 따르지 못하는 일군의 문인들을 축출했고,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집단 농장과 공장 등지로 보내어 노동 계급의 실제 생활을 체득하는 ‘현지 파견 사업’을 진행했다. 최명익 역시 현지 파견 사업에 동원되어 함경도 성진으로 내려간다. 해방기 주도권을 잡은 북한 비평가들은 문예 조직을 개편하고 ‘부르주아 미학 사상 잔재’를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한효 등이 최명익의 <제1호>, <마천령> 등에 대해 ‘부르주아 인텔리겐차’의 잔재가 농후하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들은 최명익이 북한 문학이 추구하던 전형성을 재현하지 못하고 당의 슬로건에 의지하지 않으며, 그 대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성과 사실성, ‘사진성’이 담기도록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그의 작품을 비난하였다. 특히 <마천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최명익 씨의 《마천령》은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받는 춘돌이의 회상 형식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타도’ ‘토지는 농민에게로’라는 행동강령을 갖고 투쟁해온 성진농민운동의 일 단면을 표현하였다. 이

자료라 본고에서 인용하였다.

- 8) 소련 기행문을 통해 소개된 스탈린의 이미지는 북한 김일성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선전하는데 활용하였다. 가령 한설야는 소련 기행을 통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실천되는 방식을 관찰하였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전후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새로운 테마라는 점을 소개했다. 배개화, 『북한 문학자들의 소련 기행과 전후 소련의 이식』, 『민족문학사연구』 제50집, 민족문학사학회, 2012, 365-395쪽.

농민 운동이 봉기된 것은 멀지않은 북방에서는 이미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백두산 높이 봉화를 들어 국내운동에 광명을 보내주던 때인 것이며 일방 피흘린 선연들이 뿌린 혁명의 씨는 수많은 농민대중 속에 뿌리 깊이 자라고 있던 때이며 이러한 사회적 특성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 농민운동은 그러기 때문에만 결코 성진만의 고립된 투쟁이었던 것이 아니라 길주 명천을 비롯하여 그당시 함남북 각지에서 일어났던 반일농민폭등과 유기적 연계를 가지며 또는 광범히 호응하여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전체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성진농민투쟁의 일단면을 춘돌이의 회상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마천령》은 ‘땅굴’을 활동의 근거지로 하여 광범한 빈농의 기반과 모뽕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며 기관지발행 선전조직사업 등을 전개할 뿐만이 아니라 반 백색테러의 조직계획에로까지 발전하는 이야기를 춘돌이 허국봉 옥녀 등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 (중략) 그러나 이 작품은 투사들의 혁명적 실천을 직접적 행동에서 그린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의 취조 장면을 전면으로하여 그것은 하나의 회상적인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과 또 그것을 회상하는 춘돌이 그 자체가 인테리 출신의 유약성으로 말미암아 외부적 실천활동에는 전연 관계하지 않고 하루종일 땅굴 속에만 앉아 편집 선전문 작성 등사 등의 내부공작에만 복무하던 남다른 공작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회상 범위에서 전개되어지는 사실들도 역시 구체적인 투쟁내용을 폭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미약하게 밖에는 전하고 있지 못하다. 또 취조를 받는 긴박된 시간에 창문을 통하여 동해를 내다보며 기다란 회상에 잠기며 심지어는 옥녀에 대한 한때의 연애감정까지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은 지내 작위적인 감을 주는 난점들을 보여준다.⁹⁾

9) 안함광, 『8·15 해방 이후 소설문학의 발전과정』, 『문학의 전진』, 1950.7. 이선영 외 『현대문학비평자료집』2 태학사, 1993, 45-46쪽; 김명수 또한 최명익을 비판한다. “우리는 작가 최명익에게는 아직도 부르쥬아 인테리겐차의 잔재가 농후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상적 토대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의 청산도 단시일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머리에 깊이 물젖은 부르쥬아 이데올로기적 잔재가 머리를 들고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마천령』 및 그밖에 많은 작품들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김명수, 『문학의 지향』,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53쪽.)

인용문에서 안함광은 최명익이 여전히 ‘부르주아 인텔리겐차’의 잔재가 농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모더니즘 문학을 부르주아의 문학으로 인식하였다. 해방 이전 모더니즘 작가였던 최명익이 ‘사상적 토대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청산도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오히려 최명익의 창작 방법을 이해하고 해방기 최명익 소설을 재해석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준다. 또, 일제 강점기 최명익 소설들과 해방기 최명익 소설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최명익은 북한 체제 속에서 고상한 리얼리즘을 창작방법론으로 선택하면서도 해방 이전 자신의 소설에서 보여준 치열한 문제의식과 창작방법을 타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모더니즘적 경향과 리얼리즘적 경향의 공존과 길항 작용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 최명익 작품의 연속성과 전환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안함광이나 한효 등의 비평가들이 <마천령>을 피상적으로 읽고 도식적으로 비난을 보냈음을 입증할 것이다.

3. <마천령>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지속과 전환

1) 과거 회상과 대안적 공간의 모색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동맹’의 김창만은 ‘위대한 토지개혁이 실시되는 마당에 감격적인민족의 宿望을 주제로 한 작품을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개혁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창작하라는 지령을 작가들에게 내린다.¹⁰⁾ <맥령>은 그 지령에 따른다는 의도가 분명한 작품이다. <마천령> 역시 토지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1946년 12

10) 박남수, 앞의 책, 1999, 57-58쪽.

월, ‘주민들의 사상 의식 개혁을 위한 투쟁 전개에 관하여’라는 북조선노동당의 결정서에 따라 건국사상총동원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것이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¹¹⁾

<마천령>은 같은 해에 발표된 <맥령>과 제제와 인물 설정 면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두 작품 모두 일제강점기 반제국주의 투쟁과 관련이 된다는 점과 소설의 시작이 박춘돌과 상진이라는 지식인 주인공이 경찰의 취조를 받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마천령>은 <맥령>과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맥령>이 반제국주의 사상과 김일성의 형상을 리얼리즘적 토대에서 그려낸 것에 반해 <마천령>은 반제국주의 지향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있으면서도 서사의 조직과 풍경의 묘사,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마천령>의 첫 배경은 주인공 박춘돌이 경찰 조사를 받는 성진 경찰서 이층 고등계실이다. 이곳은 유리창이 있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바다는 먹장같이 검다. 예로부터 납일臘日 무렵에 가장 검어진다는 물빛이었다. 비록 얼지는 않으나 마천령 내림의 눈보라로 열 길 백 길의 바닷물은 속속들이 엉기고 걸어져 무거운 지紙 빛깔이 되나보다 싶은 물빛이었다. 그렇게 무거운 바다는 물결도 치지 않는다.¹²⁾

춘돌을 취조하는 경찰은 유리창 밖을 응시하지 않는다. 반면 춘돌은 반복적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한다. 이러한 반복된 회상은 고등계실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의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찰서 안에서 온갖 모멸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춘돌은 바다를 바라보며 어떤 위로를

11) 진정석, 『지식인의 자의식에서 민중의 발견까지; 최명익의 삶과 문학』, 『최명익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09, 464쪽.

12) 최명익 저, 진정석 엮음, 『최명익소설선집』, 현대문학, 2009, 217쪽. 다음 인용부터는 쪽수만 표기.

받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춘돌은 바다를 ‘긴 한숨이 절로 나오도록 시원스레 넓은 바다’(217쪽)라 느낀다. 이후 춘돌은 고문 받던 때의 장면을 떠올린다.

배와 가슴에 물이 차고 넘쳐 기절할 때까지 콧구멍에다 물을 붓는 십자 형틀이 늘어놓인 고문실. 시멘트 바닥은 도수장같이 되어 물들고 가죽 조끼와 학춤 추이는 동아줄에 찌들도록 배인 뇌리며 비릿한 악담과 피 냄새가 풍기는 거기서 문초 그리고 악형. 갖은 악형에 까무러쳤다가 깨나면 또 문초가 있다.(217쪽)

인용문은 ‘성진 적색농민운동 재건준비회사건’으로 체포된 동지들이 고문 받던 장면에 대한 회상이다. 작품 서두 부분의 시공간은, ‘성진 경찰서 이층 고등계실(현재) - 성진항 바다(현재) - 성진 경찰서 이층 고등계실(현재) - 고문실(과거) - 성진 경찰서 이층 고등계실(현재)’로 전개된다. 회상에 따른 시공간 이동은 박춘돌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기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방식이 가져오는 효과를 고려할 때 지향점은 모더니즘과는 상반된다. 박춘돌이 바다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당면한 현실로부터의 도피거나 내면으로 침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경찰서 조사는 고문과는 다른 것이었다. 만약 이 장면이 고문 현장으로부터의 회피라면 투사의 강건한 의지와 행동을 그려가야 하는 고상한 리얼리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춘돌이 당하고 있는 경찰서 ‘조사’는 ‘아니꼽고 모욕적인 언사가 자행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창밖으로 눈을 돌리는 박춘돌의 행위는 패배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거부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¹³⁾ 거부는 어떤 모욕과 회유에도 동요되지 않은 증거이

13) “그자는 전부터 이편을 경계하던 모양으로 그 독살스러운 눈을 홉뜨고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제 그 기침은 ‘고라’(‘이 자식’ 또는 ‘이놈’하며 상대를 얕잡아 보는 일본어) 대신이었고 왜 녀보느냐고 당장에 뺨을 후려갈길 듯한 기세였다. 춘돌이는 다시 창밖의 바다로 눈을 돌리었다.”(219쪽)

고 그 비굴한 상황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대지가 한 팔을 뻗어 성진항 바다를 끌어안은 듯한 위진산이 바라보이고 팔굽이같이 휘돈 그 산굽이에 해평 동네가 아련히 보였다. 그리 난시만 아니라면 자기 집까지도 찾아낼 듯이 눈에 익은 지형이었다. 어머니는 뭘하실까. 아버지는 농한기인 겨울한철의 명태잡이나 한몫 끼어나 가셨는지. 물길로 오면 육칠십 리 물으로 돌아가면 백여 리, 어머니는 그 길을 매일이다시피 와서 아들을 보여달라고 애걸하고 조르다 못하여 발악까지 하더라고, 언젠가 노자끼 형사부장 놈이 제 탄엔 노상 호젓하고 애뜻한 어조로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따뜻한 육친애의 감정을 건드려 농락해보려는 얄잡고 들어붙은 수작이었다. (219쪽)

다시 바다로 눈을 돌린 춘돌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 부모를 빌미로 하여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춘돌 자신이 아니라 노자끼 형사부장이다. 춘돌은 형사의 말이 ‘육친애의 감정을 건드려 농락’하는 수작임을 알고 배격한다. ‘투지가 약해질’ 무렵 작가는 ‘마천령 바람’을 등장시킨다.

문득 썩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푸르르 떨리는 창이란 창은 물론, 묵중한 건물 전체가 지진 때같이 흔들리고 방 안은 금시에 으쓱으쓱한 찬김이 휩싸 돌았다. 창밖에는 충천한 눈보라였다. 연거푸 썩-썩 내려쐬는 바람에 회오리치는 눈보라 기둥이 바다로 물려가는 것이었다. 지금껏 무겁게 가라앉았던 바다는 연판鉛板같던 수평면이 깨지며 구름같이 피어오른 파도가 위진산을 삼킬 듯이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같이 성진항 앞바다를 뒤흔드는 것은 마천령 바람이었다. 이런 변화에 오랫동안 육박하고 쪼들렸던 춘돌의 마음은 저 바다 위를 나는 물새같이 활짝 날개를 펴는 듯하였다.(221쪽)

마천령에서 불어온 바람은 성진항 앞바다의 풍경을 온전히 뒤바꾼다. 소극적이기만 했던 춘들은 풍경을 목격하며 ‘바다 위를 나는 물새같이 활짝 날개를 펴는 듯한’ 힘을 얻는다. 이 모든 힘과 변화를 가져다준 것이 마천령 바람이다. 이후 춘들은 마천령에서의 투쟁의 순간을 소중하게 떠올린다. 이점을 염두에 둘 때, 작품 서두의 풍경의 묘사와 회상은 단순히 도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회상된 풍경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투쟁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 것이다. 춘들의 투쟁 의지를 반영하듯 소설의 다음 장면은 마천령 바람에 의해 초래된 바다의 변화를 계기로 하여 과거 마천령에서의 투쟁 장면이 서술된다. 그들에게 마천령은 ‘충전한 자기네의 혁명적 투지의 상징이었고, 말 그대로 지하운동을 하던 땅굴 생활의 근거지’(221쪽)였던 것이다.

그리운 마천령! 그것은 충전한 자기네의 혁명적 투지의 상징이었고, 말 그대로 지하운동을 하던 땅굴생활의 근거지였다. 그런 마천령을 중심으로 설봉산, 방학산에는 겨울 준비로 가을마다 만들어진 땅굴이 수십 군데나 있었다. 여러 구비로 갈피진, 골짜구니 혹은 망대같이 두드러진 피뿌리에다, 제 아무리 의심 많고 눈치 빠른 개들이라도 설마 저기야-할데를 골라가며 교묘하게 위 뚜껑을 감푸러치한 땅굴이었다. (중략) 땅굴에서 땅굴로 연락할 때에 이런 세찬 마천령 내림의 눈보라는 여간 큰 도움이 아니었다. (중략) 제 아무리 두 눈에 쌍심지를 켜가지고 노리는 경관이나 자위단 개들이라도 이런 눈보라를 거스르면서까지 덤벼들 생의는 못하였다. (중략) 오히려 그런 눈보라가 발자취를 덮어줌으로 더욱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었다. 그런 때에는 혁명가와 적기의 노래를 높이 외쳐 부를 자유조차 있었다. 동지들, 더욱이 같은 또래의 젊은 추동무들 중에는 혹은 그 세찬 눈보라를 얼굴에 뒤쓰면서 마천령 상봉을 향하여 주먹을 들고 “타도 일본제국주의, 조선 완전독립”을 위하여 싸우기를 맹서하기도 하고 혹은 연막 저편 산 밑에 있는 마을을 향하여 농민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적 궤기를 부르짖어 충전한 기염을 올리기도 하였다.(221-222쪽)

이렇게 혁명적 필기를 부르짖던 과거를 회상하니 춘돌의 마음은 ‘날개를 펴고 똥똥 뜨는 것’(222쪽) 같다. 마천령의 기억은 춘돌에게 지금 이곳 성진 경찰서라는 억압적 상황을 탈출하여 투쟁의 시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 기억으로 인해 춘돌은 경찰서 안의 억압적 상황에서도 투쟁의 의지가 생긴 것이다.

이 점은 1936년 『조광』에 발표한 <비오는 길>의 경우와 비교된다. <비오는 길>은 최명익의 모더니즘적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며 주인공 병일 역시 춘돌처럼 특정 풍경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비오는 길>에 주인공 병일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평범한 소시민적 삶을 살아간다. 그는 신흥 상공 도시의 공장 지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인과 함께 일을 한다. 주인은 취직한 첫날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병일을 감시한다. 병일은 그러한 주인의 태도에 대해 원망과 반감을 가진다.

아직까지 계속하는 주인의 꾸준한 감시적 태도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이 떠오르는 자기의 불쾌감까지는 목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도 장부를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있는 주인의 커다란 손가락에서 금고의 자물쇠 소리가 절그럭거리던 것을 생각할 때에는 시작하여 나른히 피곤하여진 병일의 신경에 헛구역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중략) 칩칩한 허공으로 솟아갈 듯이 들려 있는 누각 추녀의 검은 윤곽을 쳐다보고 다시 그 성문 구멍으로 휘황한 전등의 시가를 바라보며 ‘10만! 20만!’이라는 놀라운 인구의 숫자를 눈앞에 그리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자기네 일에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에 다시 허공을 향하는 병일의 눈에 어둠 속을 날 헤매는 박쥐들이 보였다. 박쥐들은 캄캄한 누각 속에서 날아 나왔다가 다시 누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옛 성문누각이 지니고 있는 오랜 역사의 혼이 아직 살아서 밤을 타서 떠도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었다.(18쪽)

고단한 상황이 반복되는 순간 병일은 문득 솟아 있는 옛 성문을 쳐다

본다. <마천령>의 춘돌처럼 병일도 지금 자신이 처한 사무실의 상황이 아닌 대안적 공간을 모색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문의 존재는 자본주의 이전의 시점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욕망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자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성문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병일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지 않는다.¹⁴⁾

<비오는 길>에서 병일이 질식할 것 같은 사무실 안에서 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설정은 <마천령>에서 춘돌이가 일본 경찰의 모멸적 언사를 견디지 못해 성진항 바다를 바라보는 설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풍경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한 것이다. <마천령>은 <비오는 길>의 서술구조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비오는 길>에서 성문 풍경이 병일에게 소극적 위안의 계기로 그친 것에 반해 <마천령>에서의 풍경은 주인공 춘돌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투쟁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킨다. <비오는 길>이 모더니즘적 창작원리에 기반한 개인의 내면 심리를 다룬 작품으로 본다면, <마천령>에서는 고상한 리얼리즘을 의식하면서 풍경으로부터 서술적 비약을 이룬 것이다.

2) 인텔리 의식 승화와 동지애의 실현

마천령의 기억은 춘돌에게 경찰서 안의 억압적 상황에서도 투쟁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의 공간에서도 춘돌을 따라다니는 낙인은 ‘인텔리라는 자의식’이다. 작품 중후반부는 마천령에서의 투쟁 장면과 경찰서에서의 취조 장면을 교차서술하면서 춘돌의 내면과 타인의 시선에 존재하는 ‘인텔리 의식’을 문제 삼는다. 춘돌에게 ‘인텔리’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에 찢리는’ 부끄러움이다. 이 점은 먼저 춘돌을 조사하는 일본 순사들의 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춘돌이 자기

14) 김효주, 『최명의 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50쪽.

이름 자의 ‘돌쟁’ 자가 농민의 이름에 많이 쓰인 글자라 하며 자기가 ‘농민’임을 강조하자 고등계 주임은 “대학 졸업의 농민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224쪽)이라며 비웃는다. 이어서 노자끼 형사는 춘돌이 취조 때 안경을 닦곤 하는 버릇을 인텔리다운 전술이라며 빈정댄다. 춘돌이 농민 출신의 동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눈이 나빠 안경을 쓰고 있으며 각 기병을 앓아 다리 힘이 약해 걸음걸이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농민 출신의 동지들은, “동경 바닥 아스팔트길에 예. 우유 슬기(수레)나 끌었지. 이런 스산한 산길 위는 첫 감이랑이. 그새만 해두 예 인테리 생활으 했으니까데 예.”(226쪽) 라며 농담한다. 춘돌은 그런 말들을 때마다 언제나 부끄러움을 느낀다.

동지들은 춘돌에게 땅굴에 머물며 기관지를 편집하고 선전문을 쓰고 등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한다. 그 일은 춘돌만이 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춘돌은 언제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한다. 만약 자신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땅굴 속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요행으로 여긴다면 위험한 일을 하는 동지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며 스스로를 경책한다. ‘싸우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보다 좀더 나은 환경을 넘보는 기회주의는 인테리의 불순한 부동성이라 규정되어 혁명전선에서 가차 없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춘돌은 언제나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경향이 있었음을 알고는 반성하기도 한다.¹⁵⁾ 이후 춘돌은 자신이 동지들과 다른 인텔리가 아니라 동지들과 다름없이 사선에서 싸우는 투사임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마천령 땅굴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서술과 옥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15) “아닌 게 아니라 춘돌이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았다. 때로는 조용히 혼자 땅굴 속에서 지하혁명 운동자와는 당치 않게 우울한 잠념에 정신 파는 때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 운동부족인데다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밤이면 밖에서 돌아온 동무들의 그 깊은 숨소리, 코 고는 소리에 저만 뒤척게 되는 때도 많았다. 그러나 잠이 들면 좀만 수상한 소리에도 높은 경각성으로 펄떡펄떡 정신을 차리는 동무들에 비하면 자연 뭉개게 되는 자기를 볼 때 너무나 창피하였다.”(227쪽)

최명익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은 남성의 잠재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인 경우가 많았다. 남성 중심주의적 여성관이 투영된 작품들과 달리 <마천령>에서는 혁명 과업의 동지가 된 여성 인물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옥녀는 단순히 남성 인물의 조력자가 아니라 스스로도 당당히 조국 현실을 혁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나아가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그려졌던 여성 형상이 <마천령>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이 점은 작가 최명익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 방법에 의해 여성 인물에 대해 형식적이고도 내용적인 혁신을 이룬 것이라 볼 수 있다.¹⁶⁾

‘모뽀’(항일운동에 우호적인 대중) 옥녀는 K마을과 7호 땅굴 사이의 유일한 연락원이다. 춘돌은 옥녀를 사모하지만 그것을 동지에 대한 모욕이라 여긴다. 또한 춘돌은 김송 동무 역시 옥녀를 귀해 하는 것을 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불순하다고 자책한다. 아울러 지금 자기 눈앞의 옥녀를 한껏 치장한 ‘누구라 알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환상’(238쪽)의 여인과 비교하고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각성한다.

춘돌이는 이런 제 불순한 생각을 떨어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까지 자기는 유한계급이 퇴폐적인 문화의 취미를 배우려고 안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유 달구지를 끌고 신문 배달을 해가며 고학할 때도 유한 부녀들의 백어(白魚) 같은 손과 일부러 하이힐로 뒤축을 괴이고 제 체중 하나도 잘 가누지 못하여 되뚱거리는 꼴을 경멸해온 자기였다. 그런 자기가 지금 눈앞의 옥녀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무슨 불순인가? 그것은 또한 동지에게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에게가 아니라 동지 김송에게로 흐르는, 그러나 조그만치라도 탁한 시샘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도 소박하고 그렇게도 맑은 순정에 부딪칠 수 있는 것이 기뻐다.(238-239쪽)

춘돌은 사랑의 감정 앞에서도 ‘인텔리’인 자신을 성찰한다. 이로 인해

16) 김효주, 앞의 논문, 2017, 98-99쪽.

세 사람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었던 사랑의 삼각관계는 해소된다. 욕망의 삼각관계야말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 간주하는 자본주의적 타락의 전형이기 때문이다.¹⁷⁾ 춘돌은 자신의 사랑을 기꺼이 단념한다. 그러한 양보는 동지애의 완전한 실천으로 승화된다. 이어서 동지인 허국봉이 자위단의 추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포위망을 흠뜨리기 위해 춘돌이 만들어낸 계책은 남가리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불 지르는 것은 옥녀에게 말기고 그 틈에 춘돌은 동지인 허국봉을 구해낸다. 그 일이 발각되어 춘돌과, 동지인 허국봉, 김송은 체포된다. 춘돌은 남가리에 불을 지른 범인을 캐내려는 노자끼 형사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그 방화 범인은 나요. 아까 물을 때 그날 종일 7호 땅굴 속에만 있었고 한 것은 역시 그대네가 비웃던 인텔리의 비겁한 거짓이었소.(251쪽)

춘돌은 방화 책임을 스스로 짐으로써 동지들과 옥녀의 혐의를 풀어준다. 옥녀에 대한 사랑과 이기적 자기 보호 본능을 넘어선 것이다.¹⁸⁾ 이 대목에서 ‘인텔리의 비겁한 거짓’이란 말은 새로운 반전을 가져온다. 여태까지 춘돌은 인텔리란 말에 대해 가슴이 찢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 혐의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인텔리임을 자처함으로써 진술의 일관성을 획득하고 마침내 동지들의 안녕을 구축한 것이다. 이점은 인텔리의 이기주의를 완전히 극복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해방된 공간에서 진정으로 평등한 삶을 꾸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본능적 이기심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기도 하다. 즉, <마천령>은

17) 김효주, 앞의 책, 2014, 62-65쪽.

18) <마천령>에서는 옥녀의 존재를 재차 강조한다. 소설의 결말 부분, 남성 인물들의 입을 통해 옥녀의 이름을 되뇌이게 하는 것은 여성 동지인 옥녀의 존재를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최명익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마천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혁명 과업의 대등한 동지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효주, 앞의 논문, 2017, 95쪽.

인텔리와 농민의 분리와 불평등을 마침내 해소하고 완전한 평등을 이루었다. <맥령>에서는 김일성을 등장시키지만 <마천령>에서는 자의식과 독점적 사랑의 감정을 극복하고 동지애와 혁명의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통합과 소통의 완성은 <비오는 길>의 결말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병일은 사진사를 조상할 길이 없었다. 다만 멀리 북쪽으로 바라보이는 광산 화장장에서 떠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중략) 병일이는 공장으로 가면서 “산 사람은 아무렇게라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상을 당하고 못살 듯이 서러워하였던 생각을 하였다. (중략) 어느덧 장질 부사의 흉스럽던 소식도 가라앉고 말았다. 홍수도 나지 않고 지루하던 장마도 이력저력 끝날 모양이었다. 병일이는 혹시 늦은 장맛비를 맞게 되는 때가 있어도 어느 집 처마로 들어가서 비를 그으려고 하지 않았다. 노방의 타인은 언제까지나 노방의 타인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욱 독서에 강행군을 하리라고 계획하며 그 길을 걸었다.(45-46쪽)

<비오는 길>에서 최명익이 책을 가까이 하는 인텔리 병일과 대비시킨 존재는 도시 속물 이철성이다. <비오는 길>에서는 타자와의 소통을 모색했지만 작가는 도시 속물인 사진사를 급작스럽게 죽게 함으로써 소통을 차단한다. 작품 마지막에 병일은 ‘노방의 타인은 언제까지나 노방의 타인’이라며 타자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또한 인텔리 병일은 오직 독서에만 강행군하리라 다짐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포기한다. <비오는 길>의 이런 결말을 염두에 둘 때, 최명익이 인텔리와 다른 계급 사이에 관계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지니고 성찰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천령>은 해방 이전 그의 모더니즘적 작품의 지속이면서도 전환과 비약이 이뤄낸 결실인 것이다.

4. 해방기 최명익 소설의 성취와 소설사적 가치

<마천령>이 보여주는 혁신적 전환과 소설적 성취를 구축한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최명익이 일제 강점기에 모더니즘 창작방법론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도 카프를 중심으로 한 당대 문단의 창작 방식 논쟁을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명익이 평양에 머물면서 중앙 문단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방기 북한 문단에서 정립되어 작가들에게 계도된 고상한 리얼리즘이라는 창작 방침에 동참하면서도 그것에서 이탈하여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작가적 자유공간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듯 최명익이 고상한 리얼리즘을 수용하여 소설 창작에 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일제 강점기부터 모색해온 ‘진정한 삶’에 대한 집념과 자신의 소설 창작 원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최명익은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진지하게 던져온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해방을 맞이하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모더니즘적 심리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 일제강점기 반제국주의 투쟁을 소설화한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족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 사이에서 평등한 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해방조국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맥령>에서는 소작농민들의 단결과 협업에 의한 텃밭밭이의 재건을 강조한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 간 갈등보다는 공동체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영웅 김일성의 부각과 토지개혁 완수라는 결과만을 보여준다. 이는 고상한 리얼리즘 창작원리에 부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¹⁹⁾ 반면 <마천령>에서 최명익은 일제 강점기 반제국주의 투쟁의 과정에서 이기적 생존본능이 작동되지 않는지

19) 김효주, 앞의 논문, 2018, 208-211쪽.

허국봉, 김송 동지 등의 언행을 통해 반복적으로 되묻는다. 이점은 해방 당시 북한 정국의 동시대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라 판단한다. 나아가 <마천령>은 인텔리와 농민의 구분과 갈등을 완전히 극복한 단계를 보여주었다.

<맥령>에서 최명익은 자신이 지닌 문제의식에 대한 질문을 잠시 접어두고, 토지개혁과 관련지어 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를 펼친 바 있었다. 하지만 최명익은 고민을 멈추지 않았고 이점을 <마천령>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두 작품은 이기심에 관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맥령>에서는 줌손이 영감이 가장 완벽한 민중 영웅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줌손이 영감조차도 ‘텃물받이’라는 자기 소유 경작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애착을 보인다. <마천령>에서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동지 중에서 누구도 그런 이기심과 집착을 보이는 인물은 없다. 그리고 그 점을 춘돌이 치열하게 바라보고 감지하는 것이다. <마천령>에서 보여주는 혁신적 전환과 소설적 성취는 <맥령>에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최명익은 생사를 다투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기심이나 생존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런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동지애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럴 때야 비로소 완전한 투쟁의 장이 될 수 있으며, 그런 투쟁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의 구축은 최명익이 꿈꾸던 세상이었다. 해방 후 북한 정국에서 맞은 새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최명익은 작가로서 그 점을 치열하게 성찰해 간 것이다. 최명익에게 진정한 인민의 해방과 평등한 세상은 인민이 마침내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을 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최명익이 북한 정국에서의 온갖 압박과 비난 앞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지켜갔던 작가적 양심과 정직함의 증좌라 할 수 있다.

5. 결론

이 글은 해방기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창작 방법론의 지속과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고상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교직 양상과 소설사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천령>에는 ‘인텔리 의식’ 때문에 비평가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은 최명익의 내적 고뇌가 담겨 있다. 또한 해방기 북한 정국이 제시한 ‘고상한 리얼리즘’의 수용과도 관련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방 이전 모더니즘적 경향이 강한 <비오는 길>을 준거의 틀로 삼았다. <마천령>은 <비오는 길>로 대변되는 해방 전 모더니즘 소설의 창작방식과 태도를 계승하고 지속한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맥령>으로 대표되는 해방 후 고상한 리얼리즘의 창작방식과 태도를 참작하고 수용한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마천령>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존재하는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최명익이 한때 모더니스트였고 부르주아였다는 이력은 북한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 점은 오히려 최명익의 리얼리즘 문학이 지닌 개성이자 가능성이었다. 최명익에게 ‘고상한 리얼리즘’은 억압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않았다. 당시 북한 문단 상황을 참작하고 자신의 문제의식과 창작 방법을 결부하여 자신의 소설 세계를 확장하였다. 최명익은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갱신을 멈추지 않았으며, 북한 정국에서 자신에게 요구한 고상한 리얼리즘도 자기 소설 세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소설적 혁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고상한 리얼리즘에 공감하고 동참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작가적 자유 공간을 구축한 것이다.

<마천령>은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근대적 강령의 정점을 보여주면서도 거대 서사가 무시하기 쉬운 사랑과 좌절, 회의와 깨달음의 세계를 담았다. 그런 점에서 <마천령>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정국에서 나온 거

대 서사 중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마천령>에 대한 이런 재해석을 근간으로 하여 <제1호>와 <기계>등을 검토함으로써 최명익의 후기 소설 세계를 해명하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권영민,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 김명수, 『문학의 지향』,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 김재용, 「해방직후 최명익 소설과 『제1호』의 문제성:비서구 주변부의 근대와 탈식민화의 어려움」, 『민족문학사연구』 제17집, 민족문학사학회, 2000, 396-422쪽.
- 김해연,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229-250쪽.
- 김효주, 『최명익 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 _____, 「최명익 소설 여성 형상의 변모와 작가 의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79-103쪽.
- _____, 「최명익의 <맥령>에 나타난 제국주의 수탈과 토지개혁」, 『우리말글』 제78집, 우리말글학회, 2018, 189-212쪽.
- 박남수, 『적치 6년의 북한문단』, 보고서, 1999.
- 배개화, 「북한 문학자들의 소련기행과 전후 소련의 이식」, 『민족문학사연구』 제50집, 민족문학사학회, 2012, 364-399쪽.
- 신형기, 「최명익과 쇄신의 꿈」, 『현대문학의 연구』 제2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339-383쪽.
- 안함광, 「8·15 해방 이후 소설문학의 발전과정」, 『문학의 전진』, 1950.7.
- 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 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 -『문화 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6집, 우리어문학회, 2013, 319-358쪽.
- 장수익, 「민중의 자발성과 지도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학회, 2012, 199-233쪽.
- 정현숙, 「대립과 갈등의 미학-최명익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1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619-636쪽.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최명익론」, 김윤식, 정호웅 엮음, 『한국 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195-212쪽.
최명익 저, 진정석 엮음, 『최명익소설선집』, 현대문학, 2009.

<Abstract>

Sustenance, Conversion, Communication and
Distancing during the Period of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Centered on <Macheonryong>*

Kim, Hyo-joo**

This paper is to search the sustenance and conversion of modernism creation method appeared in the novels of Choi Myeong Ik during the period of liberation, and thereby contemplate the features of teaching profession of noble realism and modernism appeared in his novel, and about its meanings. Approach to the novels of Choi Myeong Ik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should be dealt with in the continuity of various modernism works created before the liberation.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Macheonryong> released by Choi Myeong Ik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Macheonryong> is a novel reflecting his autobiographical ingredients. Here lies the internal agony of Choi Myeong Ik who was fiercely criticized by the critiques for his 'intelligentsia consciousness'. Also it is related to the accommodation proposed by North Korea of 'Noble Realism'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For this, first of all I have taken <The Rain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8019001)

** Andong National University.

Street> as a frame of reference, which had a stronger modernistic tendency in the period before the liberation. <Macheonryong> is of characteristics to inherit and sustain the creation method and attitude of pre-liberation period modernism novels. Also it retains another characteristics of referencing and accepting the creation method and attitude of post-liberation period noble realism. I have explained how these two aspects react and exist inside the novel <Macheonryong>

Key Words: Choi Myeong, “Macheonryong”, Nobel Realism,
intelligentsia consciousness, modernism, anti-imperialis

■ 논문접수 : 2018년 11월 19일
■ 심사완료 : 2018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8년 12월 10일

